

세월호 일반인 머문 3층서 첫 유해 발견

사람뼈 추정 3점...미수습자 9명 수습 기대감 높아져 조은화양 추정 유해 수습...신원 확인 한달 걸릴 듯

일반인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처음으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수습됐다. 단원고 학생이 머물렀던 4층에 이어 3층에서도 유해가 수습되면서 미수습자 9명 모두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4층 선미 객실에서 발견된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1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세월호 3층 객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2점을 수습했다. 오전 10시4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골 1점을 수습했다. 5일 연속 유해가 수습됐다.

이 곳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일반인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일반인 미수습자는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이영숙씨 등 3명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신원확인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 육안감식 결과 사람의 뼈로 추정된다. 국과수 본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미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뼈 부위 및 골편 크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57분께 세월호 4층 선미 좌현구역(4-11 구역)에서 뼈 1점이 나왔다. 4층 선미 객실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다. 이 곳에서는 전

날인 13일 오후 3시40분께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미수습자 중 특정된 유해가 수습된 것은 세월호 침몰 1123일만이다.

이 유골은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에서 발견됐으며 치아에 금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감식팀은 유골의 발견 장소와 상태 등을 토대로 조 양의 유해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DNA 검사 등을 거쳐 한 달여 뒤에 정확한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10일과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해가 수습됐으며, 11일에는 은화 양이 쓰던 가방이 발견됐다.

4층 선미는 침몰할 당시 충격으로 5층과 붙어 수중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색팀은 선체 인양 후에 5층 전실실을 절단한 뒤 수색에 나선 곳이다.

한편,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급하게 목포신항을 방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하고 온전한 수습을 위해 여당 차원에서 정부와 어떤 조율을 해야 할지 모색하겠다"며 "오는 18일 민주당 세월호 특별대책위원들과 다시 찾아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조심조심... 14일 오후 목포신항에 거처된 세월호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수습된 유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 발견 소식에 추모객들도 발길

노란 리본에 격려 글 적고 가족들 손 잡고 위로

"함께 울고 손잡아주는 시민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14일 세월호 선체 수습현장인 목포 신항에서 만난 단원고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지쳐있었다. 이씨는 "어제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유해는 우리 은화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1명 찾았을 뿐이다"며 "남은 미수습자 8명을 모두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이 함께 목포신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씨는 "솔직히 우리는 못 찾았을 줄 알았다. 다른 가족들은 다 찾아 돌아가는데 내 아이만 못 찾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자녀를 잃은 엄마의 심정으로 유해 수습을 기원해준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은화 또래의 한 청년은 이날 오전 '은화야 돌아와서 다행이야'라고 적힌 노란띠를 이씨에게 건넸다. 청년은 이씨 품에 안

기며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은화를 잊지 않을게요"라고 다짐했다.

허다운양의 어머니 박은미씨는 안색이 어두웠다. 오래 서있기가 힘이 들어 의자에 의지했다. 박씨는 "하루빨리 우리 다운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힘겹게 말했다.

이날 목포신항을 찾은 추모객들은 조심스레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무는 컨테이너 방을 찾아 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유해가 잇따라 수습되면서 기대와 조조함에 가슴 졸이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한 것이

다. 미수습자 가족을 찾은 한 50대 여성은 "자식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어 그 마음을 잘 안다. 3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9명 모두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미수습자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았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 해상 여객선·낚시어선 충돌...전원 구조

14일 오후 5시37분께 목포시 외달도 인근 해상에서 308t급 여객선 N호(정원 350명)와 9.77t급 낚시어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낚시배가 침몰, 타고 있던 낚시꾼 등 9명이 물에 빠졌으나 출동한 해경에 모두 구조됐다.

이들 중 일부는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도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에는 승객 30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별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9, 해질 19:29, 달뜨기 23:03, 달지기 08:41

봄날 만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1/23	보성	구름많음	9/23
목포	구름많음	12/20	순천	구름많음	11/24
여수	구름많음	13/23	영광	구름많음	10/20
나주	구름많음	9/22	진도	구름많음	11/23
완도	구름많음	12/22	전주	구름많음	11/21
구례	구름많음	8/22	군산	구름많음	11/19
강진	구름많음	10/23	남원	구름많음	7/21
해남	구름많음	9/23	홍산도	구름많음	12/20
장성	구름많음	8/21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서~북서	0.5~1.0	북서~서	0.5~1.0
남부	서~북서	0.5~1.5	북서~서	0.5~1.5
남해	서~북서	0.5	서~북서	0.5
서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남해	서~북서	1.0~1.5	서~북서	1.0~1.5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주간 날씨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10/20	13/27	14/29	14/29	15/29	15/29	15/29

무등산 두꺼비 대이동...등산객 발길 주의

앞서 깨어난 두꺼비가 서식지로 이동하다가 등산객 발길에 생명을 잃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제1수원지 일원에서 부화한 두꺼비떼가 서식지인 숲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 무등산 중심사지구 편백숲 아래 제1수원지 일원은 두꺼비 산란지이자 2급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목물떼새·붉은배새매·팻새조 등의 서식지다. 두꺼비는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포획하거나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했다.

제1수원지 주변에는 2014년 야생동물



이동로와 무인 계도시스템 등이 만들어졌지만, 어린 두꺼비가 탐방객에 의해 암사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김보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포획과장은 "새끼두꺼비는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발자국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

인권위 "장애 교사에 장비 제공 안하면 차별"

장애인 교사에게 지원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지역 중학교 국어교사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를 지원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용 컴퓨터 입력 기기와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 등 보조공학기를 지원하고 근로지원인을 배정에 달라고 요청

했다가 거절당하자 진정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이라며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권한과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공무원 인용령'에 교사 인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시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1번 출구**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시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나주혁신 빛가람 로데오 포장마차 사업주 모집 안내

◆ **사업지** : 나주시 빛가람동 26번지 상업 6블럭 로데오 거리 일원

◆ **자격** : 소자본으로 요식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모집업종**
 - 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가공류 : 튀김/ 오리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해물류 : 회, 생선구이, 조개구이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주류 : 수제맥주, 와인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분식류 : 제과,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동남아음식 : 베트남, 일본, 중국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유망 프랜차이즈 업종 불가

◆ **점포수** : 29점포

◆ **임대조건**
 - 보증금 : 1,000만원
 - 월세 : 매출에 따른 수수료 매장 or 월 고정 임대료 중 선택 가능

◆ **입점혜택**
 - 인테리어 비용의 최소화
 - 주 2회 거리공연 (기념일 대규모 행사)
 - 이간 배달주문 콜센터 운영 (18:00~22:00)
 - 지속적인 광고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예정
 -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상의 영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유흥의 중심"
 빛가람동 상업6블럭 로데오거리의 **"빛가람 로데오 포차"**와 함께 할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오픈 예정일 : **2017년 5월**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인원 : 상담법인 빛가람 상가 발전위원회
☎ 061)333-5001
 나주시 배냇1길 26-1 ING타워 101호